

『 삼광 구역 공과 』

일시: 2024년 1월 28일 (넷째 주일)

성경본문 : 마태복음 2장 19-23절

설교제목 : “나사렛 사람이라”

마태복음은 구약의 성취에 관심에 큼니다. 따라서 마태는 ‘성취형식 인용구’를 10번을 사용합니다. 성취형식 인용구란,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신 것이 성취되도록 하기 위함이다’ 라는 형식구입니다. 마태복음 1-2장에서만 다섯 번이 등장합니다.(마1:22-23, 마2:5-6 절, 마2:15-16, 마2:17-18, 마2:23) 그런데 마태복음 2장의 구약의 인용구들의 공통점은 모두 지명이 들어 있습니다. 6절은 ‘베들레헬’, 15절은 ‘이집트’, 18절에 ‘라마’, 23절에 ‘나사렛’이란 지명이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마태는 예수님이 어디에서 태어나시고, 어디로 이동하시고, 어디에서 정착했는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예수님은 베들레헬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런데 왜 베들레헬을 떠나셨습니까? 헤롯 대왕의 유아살해를 피해 떠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어디로 피하셨습니다. 이집트로 피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그 이후의 내용을 자세히 설명합니다. 19절에서 ‘헤롯 대왕이 죽은 후에’란 시간적 배경은 주전 4년입니다. 헤롯대왕이 죽은 이후에 주의 천사가 요셉에게 현몽해서, 아기와 마리아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22절 보면, 헤롯 대왕이 죽은 이후에 헤롯 아켈라오는 유다와 사마리아와 이두매 일부지역 즉 이스라엘 중심지역을 통치하게 됩니다. 그런데 헤롯 아켈라오는 아버지 헤롯 대왕처럼 잔인한 사람이었습니다. 따라서, 요셉은 헤롯 아켈라오가 다스리는 유다 지역에 가기를 두려워하므로, 주의 사자가 갈릴리 지역으로 가도록 합니다. 요셉은 결국 갈릴리 나사렛으로 가서 정착했습니다.(23절) 마태는 마태복음 2장을 통해서 예수님의 이동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함을 받았았고, 철저하게 구약의 약속이 성취된 사건임을 강조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신앙에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삶을 선택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선택했는데, 진정으로 그 결과 일이 잘 풀리거나, 형통한 것만은 아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요셉도 베들레헬에서 아기 예수를 낳았습니다. 말씀의 성취입니다. 그런데 헤롯대왕이 시기하여 두 살 아래의 모든 아기를 죽이도록 합니다. 말씀의 성취가 곧 위기가 됩니다. 그 위기를 피해 애굽으로 내려가게 되고, 다시 유대 땅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러나 여전히 헤롯 아켈라오로 인해 갈릴리 나세렛이란 그 당시 매우 멀리받는 동네에 정착하게 됩니다. 따라서, 프란체스코회 수사 베네딕트 그로셀은 ‘성공, 혹은 형통, 잘됨을 기준삼아 어떤 결정이 하나님의 뜻인지 여부를 평가함으로써는 안된다’고 경고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편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매순간 최선을 다해 선택하려고 애써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책임입니다. 그 결과가 형통이든 성공이든 아니면 실패나 위기이든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말씀을 따르려는 선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된 말씀을 이루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마태복음 2:23을 주목해야 합니다. 주의 말씀을 따라 요셉이 선택한 곳은 나사렛이란 동네입니다. 그런데 마태는 이러한 요셉의 선택이 결국 하나님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룬 결과가 되었다고 선포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마태가 인용한 구약의 성취인용구들은 모두 분명한 성경구절과 선지자가 누구인지 확실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마2:23의 성취인용구는 구약의 정확한 성경구절도 없고, 그 선지자도 누구인지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마태는 구약의 정확한 성경구절도 없고, 그 선지자도 누구인지 알 수 없는 내용을 들어서, 예수님을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심을 이루려 했다고 선포를 한 것입니까? 우리가 잘 알 듯이 마태복음은 친유대적인 복음서입니다. 유대인들이 기다리는 메시아는 어떤 메시아였습니까? 유대인들

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메시아에 대한 갈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지금도 예수님을 선지자 중에 하나로 여기고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가 비천하고 낮은 모습으로 멸시와 천대를 받는 고난받아 죽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이 기대하는 메시아는 왕의 면류관을 쓰고, 존귀한 옷을 입고, 큰 군대를 거느리고 존귀와 영광의 모습으로 와서 구원하는 메시아입니다. 이처럼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 나사렛을 어떤 곳으로 간주했습니까? 요한복음 1장 45-46절에 보면, 빌립이 나사렛 예수님을 만나고, 그가 선지자가 기록한 바로 그 메시아임을 확신하고 나다나엘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나다나엘이 나사렛에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고 이야기합니다. 당시에 나사렛은 무시의 대상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렛에서 나오셨기 때문에 사람들이 무시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마태는 참된 메시아의 조건은 베들레헴 출생만이 아니라, 나사렛 출신이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마태는 이것이 구약의 성취임을 강조합니다. 그러면, 구약에서 이런 약속이 있습니까? **마2:23**에서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러라”**에서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서 ‘선지자’가 복수입니다. ‘선지자들로 하신 말씀’입니다. 한 선지자가 예언한 말씀이 아니라,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이란 의미가 됩니다. 따라서, 마태가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러라는 표현은 어느 특정 구약 선지서의 구체적인 인용 구절이 아니라, 메시아를 예언한 구약 선지자들에 흐르고 있는 메시아에 대한 사상을 정리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마태는 구약에 여러 선지자들이 메시아가 무시당할 것이다, 멸시당할 것이다, 천히 여김을 당할 것이라는 주제가 예언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과연 구약 성경에 메시아가 그런 무시를 당하고 멸시당하는 모습으로 등장합니까? 시편22편은 메시아적 시편입니다. 그런데 나는 별레다, 사람의 비방거리다, 백성의 조롱거리다라고 표현합니다. 조롱받는 메시아의 모습입니다. 또한 이사야 53:2-3에서 메시아의 모습이 얼마나 사람들로 부터 멸시를 당하는 모습인가를 보여주는 또 하나의 중요한 구절입니다. 본문에 순은 히브리어로 네째르인데, 네째르가 나사렛과 연관된 단어로 붙입니다. 따라서, 예수는 연한 순같은 존재로써, 멸시와 천대를 받는 메시아임을 보여줍니다. 이처럼 마태는 요셉이 말씀을 따라 선택한 나사렛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예수께서 구약성경에 약속된 고난받은 메시아가 되심을 성취하고 계심을 보여줍니다. 한 주간도 말씀이 여러분의 삶의 등과 빛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말씀에 순종하는 자리가 되길 바랍니다.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약속을 성취하십니다.

※.말씀 생각해 보기

- 1) 요셉이 헤롯대왕이 죽은 이후에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라는 주의 천사의 말씀에도 불구하고, 갈릴리 나사렛에 정착한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봅시다.
- 2) 마태보음 2:23이 성취형식 인용구를 통해서 마태기자가 강조하고자 하는 내용이 무엇인지 설명해 봅시다.

※.말씀 나누고 적용해 보기

- 1) 이번 주 말씀을 통해 새롭게 깨달은 점은 무엇입니까?
- 2) 우리의 삶은 많은 선택이 연속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선택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따라 선택한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주십니다. 우리가 살아오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선택했을 때,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주신 경험이 있다면, 구역원들과 함께 나누어 봅시다.
- 3) 오늘 말씀을 통해 앞으로 내가 달라져야 할 신앙의 모습이 있다면 무엇입니까?